

회원사 탐방 - GS파워(주)

열병합발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GS파워(사장 손영기)는 안양, 부천 지역에 각각 450Mw급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을 통해 전기는 수도권에 공급하고, 열은 안양과 부천신도시 지역 약 27만 가구에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최초 공기업 민영화로 선정된 한국전력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시설을 인수한 이래, 사업 초기 수많은 난관과 적자운영이라는 경영환경을 극복했다. 2007년 기준 매출액 5,300억원 및 340억원의 세전이익을 실현하여 에너지업계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업계 2위의 견실한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GS파워 임직원이 보여준 각고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저가열원인 지자체 소각장 개발 및 발전소 폐열 회수 사업, 발전소 효율개선 사업 및 6 Sigma 활동 등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중점경영과제로 추진

열병합발전사업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 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환경개선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회사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약 45% 정도만이 전력으로 이용되고 55%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러나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는 45%는 전력, 35%를 열로 생산할 수 있어, 종합적인 에너지이용효율이 80% 정도나 되기 때문에 같은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2배 정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GS파워의 사업내용은 한마디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정의된다. 여느 발전소와 달리 GS파워 열병합발전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불과 2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수만 명의 고객과 마주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GS파워가 추구하는 중점경영과제는 환경, 안전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최우선을 두는 친환경경영시스템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4년 환경부로부터 환경 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보건·안전·품질에 대한 EHSQ 통합 인증을 획득하였다. 2006년에는 환경부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배열회수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용 열생산' 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록을 완료하는 등,



친환경에너지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GS파워는 2007년 산업자원부장관상인 '지역난방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2008년도 친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Clean Energy 업계의 리더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Clean Energy Leader로 도약

GS파워는 올해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손영기 사장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천지역의 증가하는 열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510MW급의 열병합발전기를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양 발전기 효율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통하여 회사 수익 개선은 물론 정부 분산 전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수식 냉방기 사업에 진출하여 열이 남아도는 하절기에 열을 이용한 냉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진단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대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 전력/난방생산업체 최초로 '제1종 에너지진

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GS파워가 구현하고자 하는 클린 에너지 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선명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의 생산, 공급, 수송, 사용부문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에너지 손실요인을 발굴하여 고객 등에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해주는 기술컨설팅 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에너지 소비량 2000 Toe 이상을 사용하는 국내 모든 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반드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이용 실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

고유가 시대 및 기후변화 대응체제 하에서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 설비 효율 향상 및 CO₂ 감축 등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에너지 진단 사업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새로운 수익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S파워는 이러한 신규 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매출액 1조원, 35만 세대 열 공급 등을 달성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Clean Energy Leader로 도약할 것이다.

〈홍보실 양승수〉

